



# 해양부 2007년도 세출예산 3조3,495억원으로 편성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해양환경 보전에 중점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3,49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①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②수산업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 ③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영토 관리 ④해양환경 보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의 11.3%(2,191억원)를 구조조정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운·항만부문은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물류중심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인프라의 적기 개발과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환경 조성에 올해보다 1,070억원 늘어난 2조407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외어장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보다 891억원이 늘어난 1조2,46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양환경부문은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28억원을 편성했으나, 지자체의 균특사업 신청이 감소해 올해보다 16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배후 물류부지 및 배후수송망 확충, 항만운영의 생산성 제고 등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등 8대 신항만 건설에 전체 해운·항만부문 예산의 약 60%인 1조2,200억원을 투입하고,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활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권역별 거점항만과 일반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완공 및 효율성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자원의 감소와 세계무역기구 도하아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조4,000억원의 투융자계획(2004~2013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을 올해보다 142.3%가 증가한 129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도매시장 및 위판장 신축, 생산이력제 품목 확대(10→20개) 등 올해보다 33.0% 증가한 636억원을 편성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별 어촌과 어항의 특성에 알맞은 어촌·어항관광개발에도 올해보다 40.2% 증가한 896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린바이오 21, 해양심층수 및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과학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8.6% 증가한 972억원이 투입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다.

또한 해양을 깨끗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범도입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도서 및 연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85억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해양폐기물 선상 복합처리선을 신규로 건조하며,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주요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WTO/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규모를 올해 1,000여척에서

2,100여척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노량진 및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을 2011년까지 신축함과 아울러 재래 도매시장 시설 및 경영개선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수도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천남외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며, 세계적인 해운물류 전문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의 한국분교를 유치하여 물류시장 수요에 부족한 글로벌기준에 맞는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토록 했다.

## 해양수산부 미래 해양전략기획단 정식 출범

### 비전 2030 해양수산분야 실천방안 수립 등

세계5위 해양강국(Ocean G5)으로의 도약을 위한 장기전략수립을 위해 미래 해양전략기획단(단장 최장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10월16일 출범했다.

기획단은 올 상반기에 마련된 '미래 국가해양전략 2016'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K21)'의 보완·발전시켜 '비전 2030 해양수산분야 실천방안수립'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 구성은 전략수립을 기획·조정하는 총괄팀, 전략의 현실성·구체성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지원반, 전략방향제시와 콘텐츠를 구성하는 워킹그룹 및 폭넓은 시야에서 조언을 제공할 고위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워킹그룹에는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

관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고위자문단에는 분야별 오피니언리더들이 참여하게 된다.

기획단 구성과 함께 본격화될 장기전략 수립 작업은 국회·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학계·업계관계자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시켜 타 부문 국가전략과 연동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최장현 단장은 "기획단에서 수립하는 장기 전략들은 미래한국의 성장동력확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해양선진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 전략이 되도록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